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6 3

미완성 입당식 결행

어제 아직 공사중인 교회에서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임시로 빌려서 예배를 드리던 결혼식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월에 방영될 예정이었던 아사히 TV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몇 년에 한 번 찾아온다는 한파와 강풍이 몰려왔습니다. 마치 폭풍 속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진 재해를 극복한 교회라서 한파와 강풍정도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구약 성서에서 예언자 엘리야가 활약할 당시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지진 번개로 땅이 황폐한 그 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조용한 음성으로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엘리야는 혹독한 피로감으로 인해 삶에 대한 의욕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보니 입당식을 드릴 때 지진이 있었습니다. 입당식이 끝나자 이번에는 강풍이 기승을 부리며 불어닥쳤습니다. 번개는 없었지만 바로 뉴스로 확인해보니 몇 년에 한 번 찾아오는 강한 한파주의보가 보도되었습니다. 교회 입당식을 위해 도쿄에서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서둘러 참석해주신 분들이 전철이 멈추어서 발이 묶였습니다.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버스터미널에 가보니 버스조차 만원으로 승차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승용차로 하네다 공항으로 멀리 돌아서 가야만 했습니다.

심한 폭풍속에서 치른 미완성인 날개교회 입당식은 마치 저희들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상징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친듯이 날뛰는 대자연 속에서 감사와 눈물의 입당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작년말에는 문없는 외기 축축한 공사현장인 교회에서 천장을 타고 떨어지는 빗물을 피하며 마치 어두운 동굴속 같은 분위기에서 예배한 것을 생각하면 이정도쯤이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일련의 지진 재해를 통해 없는 것을 생각하기 보다는 있는 것을 세어가며 감사하는 마음을 배워왔습니다. 없는 것을 불평하며 투덜거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겠지요. 그러기보다 하늘을 우러러 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입당식은 이를 한 단락 매듭짓는 의미로서의 CEREMONY 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뽕샘이 아닌 덧샘의 감사를 더해가는 계산식으로 마지막까지 나아가렵니다. 지진재해와 원전사고의 끝은 언제가 되겠는가라는 질문을 종종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네 인생 바로 그것이 하늘고향을 목표로 삼은 여로인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계도 공사중으로 아직 미완성인 것이겠지요.

교회 벽면의 발판이 제거되고 외벽과 내장설비가 완성된 모습의 교회에서 입당식을 하게 될거라 상상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피해지역의 현실인 것이겠지요.

당초 7 만명이 집을 잃었고 이 도시에 2 만 3000 명이 겨우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건설사나 토지 그리고 중고주택이나 목수들을 확보하기가 매우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예외없이 공사기간이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 가을에 완성되었어야 할 것이 작년 말로 연기되었고 지금도 아직 건설중에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때입니다. 불평보다는 더욱 주를 신뢰하고 앞으로 전진하도록 합시다.

헌당식 일자는 5 월 11 일(토) 13 시 30 분~으로 정했습니다.

일차공사는 당연히 완료될 것이라 상정해서 정하게 된 것입니다만 무엇보다 먼저 어느 분께 어떤 방법으로 안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까지 너무나도 많은 국내외에 계신 여러분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성함이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례를 무릅쓰고 인터넷상으로 헌당식을 안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시고 무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럭저럭 폭풍속에서의 입당식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3 월 중순에 저희교회가 아사히텔레비전 밤 시간대입니다만 '텔레멘터리(telementary) 시리즈'가 30 분 프로그램으로 방영됩니다.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은 녹화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취재를 위해 방송국 카메라맨과 함께 부목사님이 고소 작업차를 타고 위에서 교회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금지구역이 되버린 고향을 향해 교회가 날개의 형태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만난 적도 없는 오쿠마초(大熊町) 교회를 향해 성원을 보내는 듯이 지금이라도 당장 날개 펴 날아오를 듯이 의형제와도 같은 양상으로 말입니다. 고향에는 이제까지 네 교회가 있었고 제일 나중에 건축된 교회가 갑자기 폐쇄됨으로 인해 지금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다시 들어갈 수 없는 금지구역에 있는 교회들도 새롭게 탄생한 교회를 분명히 기뻐하고 있겠지요.

그리고 보니 구약 성서에서 형들과 떨어져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13 년후에 형들과 재회합니다. 생이별 후 태어난 남동생인 베냐민과의 첫 만남은 요셉이 30 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성서는 그 때 요셉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 장 1~5 절)

아름답게 날개 편 교회는 저희들에게 위를 향해 오를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행단계에서 생각대로 전진할 수 없을 때라도, 완벽하지 않아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벽에 부딪혀도 포기하지 않고 한계단 한계단 극복하며 위를 향해 오를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처럼 부목사님이 용기있게 고소작업차를 타고 올라가 건설중인 새 교회를 상공에서 확인해주셨으니 저희들도 강하신 하나님의 날개에 올라 이 곤란을 극복합시다. 지쳐서 웅크러들 때면 따뜻한 주님의 날개 교회에서 힘을 얻읍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시편 91 편 4 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 장 31 절)

2013 년 2 월 25 일(월)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슬기쁨의 미완성 입당식 익일에